

<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참고 기도문 >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섭리에서, 죽어야 다시 부활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의 인생 안에서 온전히 발현되려면,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온전히 살려면 내가 죽어야 성자 주님께서 사실 수가 있다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의 부족한 정신, 마음, 성격, 그리고 삶의 모든 흔적들을 내가 없을 때까지, 차원을 높이는 극적인 단계인 나의 모든 육성이 죽는 단계까지, 스승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수준을 높이고 차원을 높이는 것은 자신이라는 발판 위에 오르는 단계이지만 변화의 가장 극적인 단계에 오르면 내 자신을 진리로 죽이고, 진리로 살게 하는 단계라 하셨습니다. 이전의 나는 없고 온전히 진리 안에서의 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 사명자는 살리는 권세도, 죽이는 권세도 있다 하셨습니다. 차원을 높이는 것, 수준을 높이는 것은 자기가 행하면 되지만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오직 시대 권세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 믿습니다.

그를 통해 말씀으로, 그의 손땀으로 내 안의 모든 것을 죽이면 그는 부활의 권세, 살리는 권세로 내 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부활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두려워 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나를 죽이고 그 분 앞에 섬으로 시대 성자의 신부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극적으로 차원을 높이다 보면 사람 차원에서는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하고 높이지 못할 때가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흔히 한계라고 하는 그 때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람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때라 하셨사오니, 내 스스로 애타는 몸부림으로 인생 걸작품을 만들어 변화의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이 오직 주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최고의 차원에 오를 만큼 올라 시대 구원자를 만나 신적 차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길 위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진대 인간이기에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봉에 올랐을 그 때를 위하여 육신을 쓴 신이신 그를 이땅에 보내주시고 그 분을 통해 인간의 극적 단계에서 신적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며, 죽었다가 다시 완전하게 살아나는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의 죽음이오니 선생님을 통해 육적인 나의 모든 것이 죽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최고 높은 한계에 도달하여 선생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분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감사드리오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과 역사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생님의 이름으로 거듭나 신부의 이름을 입는 자가 되어 신부의 권세를 누림으로 그 권세 끝까지 오르고 또 오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극적인 곳에서 선생님을 만나야 극적인 차원에서 삼위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삶으로 거듭날진대 내가 죽어 내가 살게 하시며, 선생님처럼 극적인 단계에 올라 극적인 신의 삶을 살아 오르고 또 오르는 기쁨과 행복을 알기에 오르는 일이 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오르게 하실 이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어 시대 구원의 사명자로 역사하시는 선생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육적인 차원을 벗어나 영적인 차원의 높은 고도의 삶으로 이 섭리역사를 더욱 더 찬란하고, 웅장하며, 신비하고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변화되지 않으면 혼도 영도 변화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육이 변화되어 육을 가지고 실제로 행해야 될 일은 꼭 육으로 행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를 감탄하며, 기뻐하며, 좋아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성숙하게 온전히 그를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분의 모든 구원의 사명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며, 두 증인 가운데도 힘을 주시어 모든 섭리사 형제들이 하나되어 사랑으로 완전한 휴거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감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